

벤투 감독 떠난다...이승우 대표팀 승선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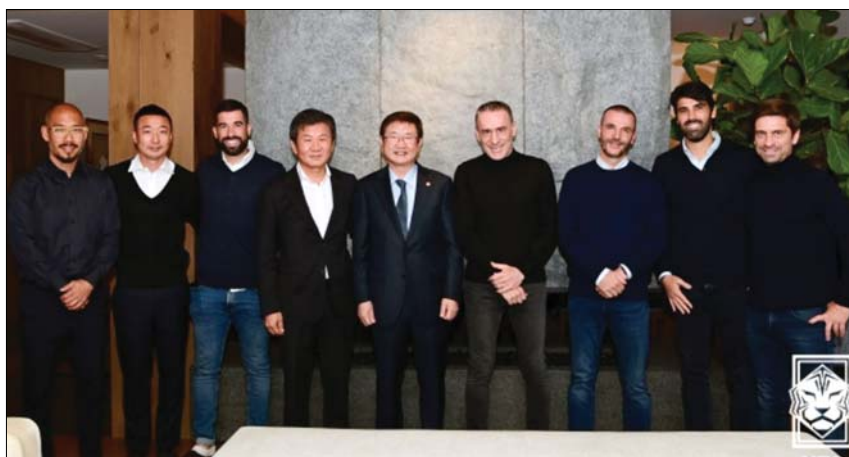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을 달성한 파울루 벤투 감독이 13일 한국을 떠난다. 이에 따라 대표팀 감독 교체가 확정된 가운데 그간 뛰어난 기량을 갖추고도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기회를 얻을지 주목된다.

벤투 감독은 13일 오후 한국을 떠나 고국 포르투갈로 향한다. 벤투 감독은 역대 2번째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와 계약 기간 등 이견 끝에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차기 감독이 누가 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새 대표팀 선수 구성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벤투 감독은 카타르월드컵을 목표로 조직력과 전술을 다지기 위해 비교적 한정된 범위에서 선수들을 선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수들은 뛰어난 기량과 소속팀 활약에도

벤투 선택 받지 못했던 김대원·이승우 주목
K리그 우수 선수와 해외파, 황선홍호 등 관심



대한축구협회 문체부장관 벤투 만찬.

/대한축구협회 제공

불구하고 부름을 받지 못했다.

13도움으로 맹활약한 김대원을 비롯해 국내 무대 복귀 첫 해 14골을 터

뜨린 수원FC 이승우 등이 대표팀에 승선할지 주목된다.

올해 K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던 오현규, 양현준, 조영욱, 엄원상, 허용준, 강성진, 고영준, 황재원, 박용우, 이규성, 고재현, 정재희, 설영우, 박진섭 등이 대표팀 승선을 노릴 만한 자원이들이다.

K리그 울산현대를 떠나 나란히 독일 분데스리가로 향했지만 소속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종준과 이동경도 기량을 회복한다면 대표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황선홍호에 포함돼있는 독일파 이현주, 박규현, 홍윤상 역시 대표팀이 육신될 만한 자원이다. 벨기에 프로축구 KAA 헨트에서 활약 중인 홍현석도 있다. 새 감독의 철학과 스타일이 중요해졌다. 새 감독이 어떤 전술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대표팀 선수들의 면면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뉴시스

정다환, 아시아 배드민턴 男복식 우승

화순중 정다환, 아시아주니어 U-15 남자 복식 우승



화순중학교 배드민턴부 2학년 정다환 학생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 태국 논타부리에서 열린 '2022 U-15 & U-17 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선수권대회' U-15 남자 복식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화순중학교 2학년 정다환 학생은 의정부시 G-스포츠클럽 나선재 학생과 파트너를 이뤄 무하마드 리즈키 무바록-라이한 다과 에드셀 프라모노(인도네시아)를 결승에서 만나 팽팽한 접전 끝에 2-0(22-20, 21-19)으로 쉼 없이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정다환 학생은 "우리 학교 대신 배인 이윤대 선수를 능가하는 국가 대표 배드민턴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다. 앞으로 쫓 열심히 하여 화순을 빛내는 스포츠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화순중 서양실 교장은 운동부 지도자 도해길 코치의 지도 하에 항상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대회에서 성적을 내어 매우 기특하게 생각한다고 격려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다.

/화순=주용현 기자

한국과 만나면 월드컵 우승?...킹메이커 징크스 '화제'

2002년 한국과 대결 16강·8강·4강 상대국 월드컵 우승

대한민국, 월드컵 '킹 메이커' 징크스의 역사		
	우승	한국팀과의 인연
2006년 독일월드컵	이탈리아	2002년 16강전 상대
2010년 남아공월드컵	스페인	2002년 8강전 상대
2014년 브라질월드컵	독일	2002년 4강전 상대
2018년 러시아월드컵	프랑스	2006년 G조 톱시드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르헨티나(?)	2010년 B조 톱시드

그야말로 '킹메이커'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우승국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징크스가 화제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한국과 토너먼트 대결에서 만났던 국가들이 차례로 우승을 차지했고, 다음 대회인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톱시드 국가가 우승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 8강, 4강에서 만난 팀들이 차례로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 우승한 이탈리아는 2002년 한국과 16강에서 맞붙었다. 한국과 8강에서 만나 승부차기 끝에 탈락한 스페인은 2010년 남아공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다.

한일월드컵 4강에서 한국을 누르고 결승에 오른 독일은 2010년 다음 대회인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2018년 러시아월드컵 우승팀인 프

랑스는 한국과 어떤 인연이 있었을까. 프랑스는 2002년 다음대회인 2006년 독일월드컵 조별리그 당시 한국과 같은 조에 속했다. 우리와 같은 조 톱시드 국가였다.

이 징크스대로 한다면 이번 2022년 카타르월드컵의 우승팀은 아르헨티나가 된다. 아르헨티나는 2010년 남아공월드컵 당시 한국과 같은 조에 속한 톱시드 국가다.

이들 국가들은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톱시드를 받은 국가들이기도 하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개최국으로서 톱시드를 받아 D조 H조에 각각 속했고, 프랑스(A조), 스페인(B조), 브라질(C조), 독일(E조), 아르헨티나(F조), 이탈리아(G조)가 각각 조별리그 톱시드 배정을 받았다.

개최국을 제외한 2002년 조별 톱시드 국가들 가운데 이후 월드컵에서 유일하게 우승하지 못한 나라는 아르헨티나가 유일하다.

그렇다면 실제 아르헨티나 우승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12일 미국 통계전문업체 '파이브서티에잇'에 따르면 아르헨티나가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할 확률은 37%다. 4강 진출국 중 1위다. 2위는 프랑스로 우승확률은 35%다. 3위는

크로아티아(16%), 4위는 모로코(13%)다. 2019년부터 이번 월드컵 이전까지 아르헨티나는 A매치 36경기 무패(26승 10무) 행진을 달리고 있었다. 조별예선 첫경기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충격패를 당했지만 그 이후부터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 2019년 이후 승률은 71%에 달한다.

월드컵 조별예선부터 8강까지 총 5경기서 9골을 넣었다. 경기당 1.8골이다. 본선 진출 32개국 중 스페인과 공동득점 5위다. 4강에 진출한 국가들 중 예선 프랑스에 이어 2위다.

하지만 5골을 상대에게 헌납했다. 경기당 1실점이다. 4개국 중 프랑스와 함께 최다실점 공동 1위다.

지난 월드컵 역사를 보면 수비력이 강한 팀이 우승에 더 가까웠다.

현행 7경기 체제(조별예선 3경기, 본선 4경기)로 바뀐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우승국인 프랑스는 8강까지 5경기에서 10골 1실점을 기록했다. 경기당 2골, 0.2실점이었다.

지난 1998년부터 20년 간 우승국의 8강까지 경기당 평균 골은 2.36골, 평균 실점 수는 0.55실점이었다.

통계적으로 볼때 아르헨티나는 지금보다 수비력 강화에 더 신경써야 한다. 이번 월드컵에서 리오넬 메시(35·파리생제르맹)가 그의 커리어 말미에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시스

골프여제 박인비 결혼 8년만에 임신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가족 생겼다"...내년 4월 출산 예정



골프 여제 박인비(34)가 임신 소식을 알렸다.

박인비는 13일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고 축하해주셔서 감사입니다. 저희에게 온 축복 소중히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are thrilled to announce that we will be welcoming new member of our family. Thank you all for so much support and love.

박인비는 이 글과 함께 아기 옷과 인형이 있는 사진을 올렸다. 출산 예정일은 내년 4월 말로 알려졌다.

박인비는 2014년 스승 코치였던 남기협 코치와 결혼했고 결혼 9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했다.

박인비는 2007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데뷔해 통산 21승(메이저 7승)을 거뒀다.

그는 LPGA 역사상 7번째이자 아시아 선수 최초로 여자골프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박인비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여자골프 금메달을 땀다.

생활속 물 절약 함께해요!

